



안산병원 2022년 4/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보고

2022년 4/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가(이하 산안위) 12월 29일(목) 오후 4시 30분 베리타스 라운지에서 진행됐다.

산안위는 노사 대표위원을 비롯한 위원들이 참가했다. 회의는 노사대표 인사말, 노동조합이 요청한 자료 점검, 안전 논의 및 현안 문제를 공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회의는 약 1시간가량 진행됐으며 4/4분기를 마무리하면서 2022년 모든 산안위의 일정이 종료됐다.

이번 산안위는 본회의의 시작 전 2차례의 사전회의를 거쳐 진행됐다. 본회의에서 상정되는 안전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해결방향을 모색하기보다 요지를 설명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전회의를 진행하게 됐다. 이를 통해 본회의에서는 안전에 대한 심도있는 대화가 오고 갈 수 있었다.

산안위는 노사 대표의 인사말로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사측 대표위원인 김운영 병원장은 “올해가 며칠 남지 않았다. 건강하고 편안하게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며 덕담을 건넸다.



노재옥 지부장, 인증평가로 고생한 직원들을 위한 보상 필요해.

노재옥 지부장은 “지난 산안위를 돌이켜 보면 성과도 많았다. 대표위원 및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료기관인증평가를 치르느라 고생 많으셨고 고생한 직원들에게 보답이 있구나 궁금하다. 또한 인증단 조사위원 중에 너무 지나치게 인증을 한 사람이 있지 않았는지 궁금하다. 굉장히 깐깐하거나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면 말씀해달라.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기관 인증기준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명단을 제출하면 해당자는 추후 인증단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조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한 “고려대학교 총장으로 김동훈 교수님이 되셨다. 그런데 고려대학교의 총장선거에 고대의료원 교직원들의 참정권이 없다. 학교는 교직원이 400명정도 밖에 안되는데 우리는 5천 명이 넘는다. 의료원 교직원이 참정권을 얻을 수 있도록 대책위를 구성해서 진행하려고 한다. 대표위원도 응원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재옥 지부장은 산안위 위원인 배재현 기획실장의 불참 소식에 유감을 전했다.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산안위 참석을 부서장이 거부할

자격 없어, 이는 산안법 위반

산안위 회의 시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감)을 위촉된 직원이 노측 위원으로 참가하는데 노조에서는 사전에 공문을 발송해 참석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직원이 근무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산안위 회의를 참석하지 못하도록 해 결국 참석하지 못했다. 우리지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23조 ②항 ‘사업주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하여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조항에 도 위반된다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산안위를 통해 직원들의 노동환경이 개선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현장을 발로 뛰는 명감의 회의 참석 불허는 이율배반적 행위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산안위는 오로지 직원들을 위한 자리이다. 2023년은 더욱 더 직원들을 위한 노동환경을 생각하는 노사가 되길 바란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안건 및 결과 >

안건		답변
지난 산안위 이행 점검 건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 규칙 건】 ① 간호사 간편복 세탁 횟수를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자. ② 간편복 교체 안건을 노사협의회 때 다뤘으며 간호교대제 개선 TFT로 이관되었다. TFT를 통해 방향점을 잡아갈 예정이며 도움 바란다.	① 간편복 세탁 횟수를 확대하려면 예산이 필요하고 3개 병원 공통으로 가야하므로 산안위에서 답변 드리기 어렵다. ② 알겠다.
	【환경관리실 1인 근무 금지의 건】 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환경관리실 1인 근무를 금지하고 2인 이상 근무로 전환해야 한다.	2023년에 인력요청을 할 예정이다. 의료원에서 인력에 대한 부분이 많이 타이트한 편이라 반려된다면 병원장 T/O로 투입하겠다.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건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및 사후관리 건】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과정에서 도출되는 증상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단계별로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하자.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논의 하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안건을 보다 심도 있고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요구한다.	취지는 동의하나 소위원회 형식보다는 사전 실무회의의 형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현안문제	【직원 간 폭언 폭행 항의 건】 협력업체 직원 A의 언행이 직원 간 존중의 도를 넘고 있다. 얼마 전 교직원 B와 부딪힌 사고가 있었다. 이로 인해 B는 입원 치료까지 받았으나 A는 일체의 사과나 반성이 없었다. 또한 교직원 C와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으며 이 때 C에게 폭언을 해 다음 날 병가를 내기까지 했다. A는 평소 다른 직원들을 대할 때에도 신경질적이며 짜증을 낸다고 한다. 외주업체 직원이라 할지라도 단호히 조치해야 한다.	지난번에 안건을 접수 받았으며 현재 해당 직원은 사직한 상태다.
	【123병동 고충처리 건】 최근 흉부외과>코로나>혈중>응급병동으로 담당과의 전환이 많아 부서원들이 힘들어했다. 더욱이 간호사 26명 중 19명이 20-22사번으로 구성되어 있어 한 듀티에 19사번 1명, 22사번이 3명이 근무하는 등 업무공백과 노동강도가 심각하다. 또한 응급병동으로 전환했음에도 감염방을 유지하고 있어 업무강도가 심한 상태다.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권역응급센터로 지정이 되면서 어느 부서를 선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정했다. 감염방 2병동 중 1병동을 다른 부서로 이전했다. 또한 업무 로딩이 심하다면 간호부와 논의해 인력충원을 하겠다.